

천일염과 해풍이 만든 명품 맛... 온가족 '밤상의 영광'

전국 1등 지역 명품

③영광 굴비

영광굴비가 최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모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먹거리 프로그램을 통해 짝퉁 굴비 문제를 제기하고 영광원전의 잦은 사고로 굴비의 명성이 퇴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광군과 굴비의 주산지인 법성포 상인들은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처분 신청을 내고

영광원전의 명칭 개정을 요구해 한빛원전으로 바꾸기까지 했다.

이같은 우려곡절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굴비하면 영광'을 떠올릴 정도로 영광굴비는 브랜드 파워가 강한 지역명품이다. 영광에선 487개 생산 가공업체가 연간 1만9000t의 굴비를 생산해 289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수치다.

굴비는 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이지만 조기와 성분이 다르다. 조기는 수분이 주성분이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약간 많은데 비해 굴비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지방·회분·칼슘·인·철분 등 무기성분이 골고루 함유돼 있다. 생조기와 달리 감칠맛을 내고 식욕을 돋우는 이유다.

487개업체 1만9000t 전국 60% 생산량

2009년 특구지정 명품 브랜드 체제 갖춰

'진품인증태그' 도입 짝퉁굴비 논란 없어

영광굴비가 타 지역 굴비와 달리 명품이 된 것은 천일염으로 삼간을 하고 법성포의 해풍과 햇볕으로 말리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전통적인 염장방식인 '삼간'에 있다. 다른 곳에서는 염수에 조기를 담가 간을 하지만 영광굴비는 간수를 천일염으로 한마리 한마리 간을 하고 재빨리 염도가 낮은 염수에 세척한뒤 염어 말린다. 이때문에 그 날 염수에 간을 한 굴비를 영광사람

들은 '물굴비'라고 하대한다.

영광굴비는 2009년 5월 법성포일대가 굴비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명품 브랜드 체제를 갖췄다. 169억 원을 들여 생산공정 현대화와 공동 브랜드 개발을 완료했다. 2010년 10월 '본 영광'이란 영광 특산물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 것도 특구지정 이후 나타난 결과다.

그렇지만 영광굴비 명품화에 기여한 핵심 사업은 품질인증제 실시

와 생산이력제 도입이다. 22개 업체가 수산물품질인증 업체로 등록했고 수산물이력제 등록을 마친 업체도 26개에 달한다. 특히 수산물이력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단계별로 기록·관리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로 영광굴비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영광굴비특품사업단이 2011년 도입한 '진품인증태그'는 짝퉁굴비 논란을 잠재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단은 영광군수협에서 위탁한 굴비에 대해서만 태그를 붙여 중국산 등 짝퉁굴비가 끼어들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현재 영광굴비의 40% 가량은 이런 진품태그가 붙어 유통되고 있다.

영광군 해양수산과 이동만 굴비마



영광굴비는 천일염 삼간과 법성포의 해풍 및 햇볕 건조 과정을 거쳐 명품이 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케팅담당은 "내년에 법성포에 굴비타운과 냉동·냉장창고를 만들고 굴비를 대량으로 건조하는 공동덕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시설이 갖춰지

면 영광굴비의 명품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ju@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녹우당 가는길 꽃양귀비 활짝

고산 윤선도 유적지인 '녹우당' 진입도로에 꽃양귀비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려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해남군은 5월 들어 주말이면 5000여명의 관광객들이 녹우당을 찾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남군 제공>

신안 압해읍-가란도 다목적 보행교 개통

상수관 설치 식수난 해결

항상 물이 부족한 섬에 상수도 공급하고 나들이객도 다닐 수 있는 보행교가 건설됐다.

신안군은 23일 압해읍에서 가란도를 잇는 길이 275m, 폭 2.5m의 해상 보행교를 준공하고 개통했다.<사진> 보행교 준공으로 가란도 거주 4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들이 걸어서 육지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상 보행교 밑으로 50mm 상수도관을 설치, 물이 부족한 가란도에 장흥 탐진댐 물을 24시간 공급한다.

60가구 120명의 주민이 매년 갈수기 때 겪는 식수난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가란도의 다목적 해상보행교 사업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보행교를 이용한 작은섬

주민들의 육지 나들이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효과가 있는 대표 예산절감 사례"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슬로시티 청산도, 가족체험 여행지 최고

전남 유일 '베스트 그릇' 선정

완도 청산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가족 체험 여행지 '베스트 그릇'에 선정됐다. '베스트 그릇'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내가 뽑는 대한민국 베스트 그릇' 대상지를 추천받아 전국 34

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네티즌 투표(60%)와 전문가 심사(40%)로 결정됐다. 청산도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역이 뽑혔다. 전남에서는 청산도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청산도는 느낌을 통해 행복을 일깨워 주는 '슬로시티'로 유명하

다. 2007년 가고 싶은 섬으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09년 슬로우 걷기축제 시작으로 연간 9만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과 지난해에는 33만여명이

찾았다. 올해는 5월 현재 17만여명이 방문했다.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청산도에는 '세계슬로길 1호'와 국가 중요 농업유산 1호인 구들장논이 있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고유한 전통 문화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이 살아 숨 쉬는 청산도를 '힐링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완도 소안도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추모비

유가족·주민 참여 29일 제막식

완도군 소안도에 한국전쟁 전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가 건립됐다. <사진> 소안도 항일운동 기념공원에 세워진 추모비 제막식은 오는 29일 오후에 열린다.

'소안면 희생자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회'와 소안면이 주최한 제막식은 유가족, 향우,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www.kjhr.com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목적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신양파크호텔 가정의 달 페스티벌

가족·스승 동반 이벤트 | 행사기간 2013. 5. 1(수) ▶ 5. 31(금)

행사1 중식당 SET메뉴, 일반식사 4인 이상 드실 경우 1인 무료 〈특별메뉴〉(다사이즈 주문시(사사이즈 가격 적용 판매 제외)가탕수육(대) ₩41,800 → ₩30,800 전 가 복(대) ₩82,500 → ₩60,500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2 양식당 스테이크 (안심/등심) 4인 이상 드실 경우 1인 무료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3 중식당&양식당 이용고객 경품추첨 (당일 명함 수거 및 번호 배부 추첨) 5월 31일~10일, 15일 스승의 날 17일 석가탄신일, 21일 부부의 날 (점심) 오후 2시 (저녁) 오후 8시 추첨 레스토랑 상품권 각 1매
---	--	---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웨딩 Special 이벤트!!

7~8월 웨딩 확정시 특별할인가격

뷔페 33,000원 ~ 스테이크 38,500원 ~

Membership 신설 신양파크호텔의 품격있는 VIP로 초대합니다

① 휘트니스 Gold 멤버십 (보증금 6개월: 125만원 1년: 248만원)	② First Class 포시즌 멤버십 297,000원
--	--------------------------------

Shin Yang Park Hotel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